Hana Infinity

하나은행

2025 May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금 리

4월 동향

국내 정국 불확실성 해소 및 이후 트럼프 관세에 따른 미 자산가치 하락 속 국내외 금리 상승세 시현. 이후 관세 유예와 한은 비둘기 기조, 국내 1분기 역성장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전반적 금리 하락 추세 전환

국내 정국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우려 반영. 하지만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등으로 상승 양상 전환

■ 월초, 국내 정국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후, 미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경기 우려 반영 속 하락 전환. 하지만 곧이은 관세 유예에 위험선호 부각되며 상승 전환 시현

- 월 초, 헌재 결정일 지정에 따른 국내 정국 불확실성 일부 해소 기대 등으로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미 상호 관세 부과 이후, 경기침체 등을 우려,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부각 속 하락 전환
- 여기에 KDI가 경기 하방 위험 넉 달째 커짐을 경고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이후, 관세 관련 중국 제외 주요국 90일 관세 유예 발표가 나옴에 따라 위험 선호 회복되며 상승 흐름 전환 시현

대내적 한은 총재의 비둘기적 국회 발언 이후, 이어진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과 추경안 확정 등에도 긍정적 외국인 수급 요인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미-중 관세 전쟁 격화 다소 소강 국면 속에 미 국채 투매 현상이 잦아들었고, 여기에 한은 총재 비둘기적 발언으로 금리 하락 국면 시현. 이후, 금통위 금리 동결과 추경안 확정에도 긍정적 외국인 수급 유입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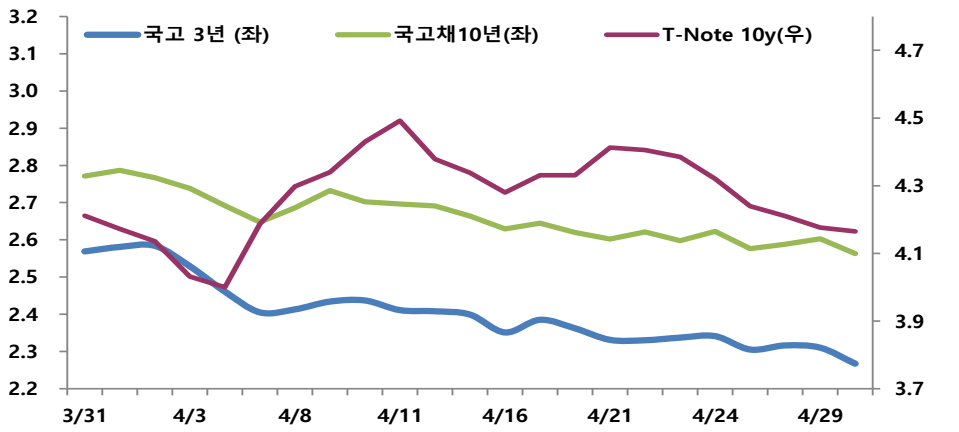
- 중반, 미-중간 관세 전쟁 격화가 다소 진정 국면을 보임에 따라 미 장기국채 투매 현상 완화 속에 한은 총재의 국회 발언이 비둘기적 인식 영향으로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 그러나 미 경기침체 우려 지속하며 국채가격 하락 속에 한은 금리 동결 결정으로 상승 전환한 국고채 금리는 이후, 정부의 12.2조 추경 확정에도 긍정적 외국인 수급 유입 등으로 하락 전환한 국면

미-중 관세 격화에 대한 되돌림 속 'Sell USA' 완화된 가운데 국내 1분기 역성장 요인과 이에 따른 한은 총재의 '양적 완화'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이어진 국면

■ 후반, 미-중 관세 전쟁 완화 움직임에 '셀USA' 흐름 되돌려지며 미 금리 상승에 연동. 이후 국내 1분기 역성장 영향 반영 및 한은 총재 '양적 완화'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마감

- 후반, 미-중간 관세 정책에 대한 상호 유화적 움직임에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높아진 점에 '셀USA' 되돌림 속 미 금 상승에 연동
- 이어 국내 1분기 -0.2%의 역성장에 따른 향후 경기 우려감 속에 이에 대한 한은총재의 '양적 완화'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4월 평균
국고채(3년): 2.40%
T-Note(10년): 4.28%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5월 전망

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 지속에도 연준 매파성향 지속되겠지만, 미국, 국내 1분기 역성장 이후로도 성장 경로 불확실성에 의한 한은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의 시장 영향으로 금리 하락 추세 유효할 전망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55(F)	2.30(F)	2.25(F)	2.15(F)

관세 영향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증대에도 연준 경기판단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약화 대응하기 위한 매파적 기조 우위가 통화정책 전반 지배할 전망

■ 미 관세 시행 이후, 침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도 연준은 여전히 경제가 견조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 국면. 여기에 관세에 의한 물가 재상승 압력 고려가 당분간 통화정책 기조를 지배할 전망에 따른 매파 성향이 국내외 금리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 연준은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경제 전망 불확실성을 증대 시켰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양상. 이에 통화완화 기조 전환에 대해 행정부와 시장 기대가 크게 상존. 그럼에도 연준은 여전히 경제 활동이 견조한 확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매파적 성향으로 비춰질 요인
- 여기에 관세의 실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약화도 심도있게 고려하는 기조는 통화완화에 소극적이면서 매파적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외 금리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한·미 경제가 1분기 역성장 보인 가운데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및 국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등 악재 영향이 금리 하방 압력 키울 것으로 예상

■ 미 1분기 역성장 속 국내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미-중 관세 합의 지지부진에 따른 중국향 수출 감소 우려 등이 금리 하방 압력 높일 전망. 여기에 대내적 컨트롤타워가 재차 장기간 부재할 측면도 경제불확실성 확대 속 금리 하락 키울 요인으로 판단

- 미 1분기 성장률 -0.3% 기록한 가운데 관세 영향에 따른 국내 성장 경로 불확실성 크게 증대. 여기에 미-중 관세 협상 지지부진으로 인한 중국향 수출 감소 우려 등이 금리 하방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향후 정국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속 월초 직후 행정부와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가 현실화한 상황 등도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경계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금리 하락 추세를 키울 전망. 다만,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확장적 추경 요인 등이 일부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5월 국고채(3Y) 금리는 2.20%-2.35%

■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요인의 압박에 따른 국내 경기 전망 경로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여건이에 한은은 선제적으로 대선에 앞서 성장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5월 중 금리인하 단행이 예상. 이에 국고채 금리는 사전적 반영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 증대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안정적 흐름이었지만, 국내 1분기 성장률은 건설 경기 부진, 내수 회복 지연, 수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에 종속되며 -0.2%(qoq)의 역성장 시현
- 이에 한은은 고환율 우려 및 가계부채 再확대 가능성에도 경제 하방 경로 불확실성을 고려 연준에 선제적 금리인하 단행할 것으로 보여짐. 이는 사전적 금리 하방 압력에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관세 정책의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 매파 성향 지속 • 국내 경기 약화에 대응한 추경 통한 정책 공조 영향	• 한-미 1분기 성장률의 역성장 속 국내 경기 하방 압력 고조 • 대내 경제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외신인도 저하 • 한은의 경기 중시 정책 및 금리 인하 전망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달러/원 환율

4월 동향

국내 정국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크게 하락 출발한 환율은 관세 부과 이후 연고점 갱신 후 이내 달러 가치 하락하며 연저점 하락. 하지만 관세 협상 불투명성과 위안화 약세 속 소폭 상승 후 재차 하락 시현

국내 정국 불확실성 일부 해소 영향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 연이어진 미국 상호 관세 부과 이슈에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환율변동성 확대 양상 시현

■ 월초, 헌재 발표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환율은 크게 하락 출발 했으나, 미국 상호 관세 부과와 미-중 관세 격화 속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부각 등으로 연 고점까지 상승 시현하지만, 트럼프의 중국 제외 관세 유예 조치 이후 무역 긴장도 완화되며 큰 폭 하락 전환

- 월초,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경기 하방 압력 확대 국면이었으나, 대내적 헌재 결정 등으로 일부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원화 강세 일부 시현
- 이후, 상호 관세 영향이 미-중간 격화하며 장중 연고점 시현한 환율은 트럼프의 중국 제외 주요 국가들에 관세 유예를 시행함에 따라 무역 긴장도가 크게 완화되며 환율도 큰 폭 하락 전환한 국면

미-중간 관세 보복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확대가 달러 가치 저하를 가져온 가운데 대내적 한은 기준금리 동결과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의 수급 상황 반영하며 등락

■ 월 중반, 미-중 간 맞불 보복 관세 이슈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며 달러 가치 하락 속 환율은 연중 최저 수준 하락. 이후 한은 금통위 결정과 수급 요인을 반영하며 등락 시현

- 중반, 미국 145% 관세 부과에 대응한 중국의 125% 보복 관세 여파가 경기침체 우려를 확대하는 가운데 달러 매력도 저하로 달러인덱스 100선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환율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이후, 달러인덱스가 일시 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재차 경기침체 우려에 약달러 기조가 나타난 국면. 여기에 한은의 환율 불안,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리 동결 결정 또한 원화 강세 지지한 가운데 배당 역송금 수요 등의 수급 영향이 더해지며 연준 최저 수준에서 등락 양상 시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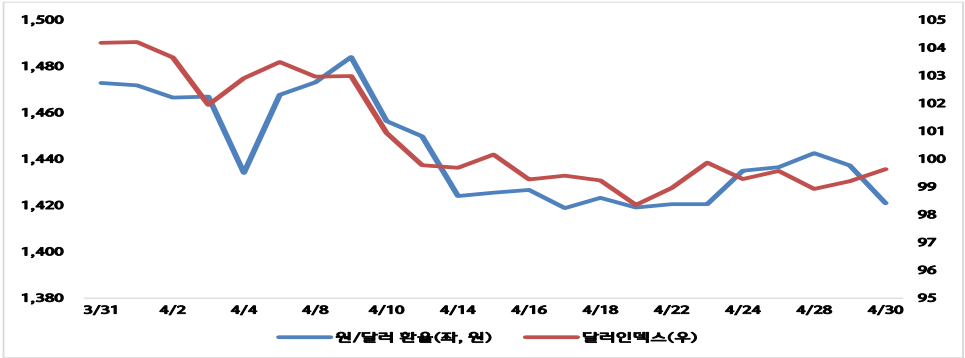
미 행정부 관세 정책 및 연준 독립성 비판 완화에 달러 가치 상승하며 1,440원대 진입. 이후, 미 성장지표 악화 및 지지부진한 미-중 협상 속 월말 달러 매도 물량 확대에 1,420원대 초반 마감

■ 후반, 달러 가치 하락 심화 속 1,410원대 하락 후, 미 행정부의 관세 및 연준 독립성 비판 완화로 환율은 재차 1,440원대 진입. 이후, 중국 위안화 약세와 미 1분기 GDP 악화 전망 및 미-중 관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달러 약세 탄력 받으며 환율은 1,420원 초반 마감

- 후반, 달러 가치 하락 심화에 1,4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미 행정부의 관세 및 연준 독립성 비판 완화로 1,430원대 상승 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약화에 달러 강세 속 1,440원대 재상승
- 이후, 중국 통화 완화 기대에 의한 위안화 약세 견인 속 국내 1분기 역성장에 상방 압력 높였으나, 미 1분기 성장률 최악 전망과 지지부진한 미-중 관세 협의에 달러 약세 탄력으로 1,420원 초반 마감

4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41.9
4월말 달러/원 환율
: 1,421.0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5월 전망

관세 관련 미 행정부의 협상 지연 등이 달러 약세 견인 요인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연준 매파적 기조 지속과 대내적 성장 경로 약화 등으로 1,450원 전후 흐름 나타낼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440(F)	1,465(F)	1,430(F)	1,410(F)

연준 의장 등에 대한 미 행정부 재신임에도 달러 약세 지지보다, 여전히 관세 정책 물가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 등이 통화정책상 매파적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재신임에도, 파월 의장과 주요 연준 당국자들 기조가 향후 미 경기 침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당장 관세 효과로 여전히 높은 수준 물가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스탠스 유지될 전망. 이는 통화정책 측면 매파적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 약달러 선호 기조에 따른 연준 압박 이후, 재신임으로 선회하며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던 측면이 달러 가치 일부 강세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친 형국
- 이러한 미 행정부의 연준 재신임에도 연준 당국자들은 관세 정책의 미 경제에 대한 우려는 상존. 그럼에도 현 시점 미 경제 활동이 견조하다 판단하는 점과 관세에 의한 물가 재상승 우려 속 여전히 매파적 통화 스탠스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양상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 달러 강세 지지할 전망

한-미간 환율 정책 의제화에 따른 원화 강세 유도 움직임 등은 환율 하락으로 작용할 소지. 다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서 후퇴적 모습 빈번할 경우와 환율 정책 의제 요인 등이 원화 강보합에 영향 미칠 전망

■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이 빈번할 양상은 달러 약세 제한에 영향 미치겠지만, 미국과 2+2 관세 협상과정에 '환율 정책' 의제화 측면은 원화 강세로 작용할 전망. 하지만 이에 따른 일부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은 환율의 부메랑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과 관세 격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를 크게 높임에 따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빈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은 달러 약세를 일부 제한할 요인
- 하지만 한-미 2+2 관세 협상에서 '환율 정책' 의제화 된 점은 한-미가 상호 원화 강세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에 영향 미칠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과도한 원화 강세 요구는 오히려 국내 중견기업 이하 부문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효과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5월 달러/원 환율 1,410원 ~1,445원 예상

■ 트럼프 관세 협의 불명확성, 중국 위안화 가치 절하 유도와 국내 1분기 역성장에 따른 성장 전망 하향 속 약화 우려 및 중부유럽 종전 불확실성과 인도 관련 분쟁 등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원화 환율 하단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중 협의 불확실성에 따른 중국 위안화 약세 유도 가능성과 동 요인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 약화 및 1분기 국내 역성장 속 성장 동력 우려에 따른 외환수급 부정적 요인이 원화 약세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미-우 광물 협정 체결 등 중부 유럽 종전에 긍정적 요인에도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측면과 기타 지역 등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가능성 등이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미 관세 등에 따른 국내 성장 경로 불확실성 증대 • 미-중 관세 협상 지지부진 속 위안화 약세 영향 • 연준의 물가 대응 기조 강화의 매파 성향 지속	• 미 1분기 역성장 속 미-중간 미약한 협의 등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상존

자료: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종통화

엔/원 전망

최근 BOJ 금리 동결 결정 등이 엔화 약세를 자극할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미-일 협상 의제에 환율 이슈 부재 여건과 관세 영향에 따른 성장률 하향 조정 등도 엔화 환율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4.2
4월 엔/원 평균환율
: 999.2

■ (엔화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등에 대한 관세 24% 부과 발표 후, 뉴욕 금융시장 충격 및 경기 우려 반영 속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엔화는 강세 흐름 시현. 이어 EU의 미국과의 무역전쟁 회피 시사에 위험회피가 되돌림 된 가운데, 일본도 미국과 관세 협상 돌입 기대감과 트럼프 관세 유예 등으로 약세 전환한 형국. 하지만 월 중반 미-중간 갈등 격화 속 달러 매력 저하에 엔화 수요 증가하며 재차 강세 후, 후반, 미-일 재무 장관 회담에서 엔화 환율 수준 우려에 강세 이어지다 엔화 압박 배제 소식 속 약세 전환하며 마감

5월 엔/원 예상범위
: 965-995원

■ (엔/원 전망) 미국 관세 정책 영향 확인하기 위해 금번 금정위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측면이 엔화 약세를 견인하겠지만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기조가 상존한 측면은 약세 흐름 제한 요인. 여기에 미국 관세 영향 고려, 연간 성장 전망을 하향한 점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속에 단기적 경기 회복력 약화 등으로 엔화 가치 변동성 심화가 예상

- 최근 미-일 관세 협상 이후 미국의 엔화 절상 기대 여파 등이 엔화 강세 요인이나, 환율 논의 부재했던 측면과 2월 금정위의 관세 여파 고려 금리 동결 결정 등이 단기적 엔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 여기에 미 관세에 따른 단기적 충격 여파에 수출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흐름 지속 등 성장 경로가 불확실 해진 우려도 엔화 약세 견인할 전망 속 엔/원 환율은 상대적 원화 강세 속 980원 전후 흐름 예상

유로/원 전망

성장 회복에 초점 맞춘 금리 인하 기조 속 재정 확대 요인 등으로 유로 강세 이어질 전망. 여기에 주요국과 미국 관세 협의 부진도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이나, 중부유럽 전쟁 종전 불확실성 등은 강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224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618.1

■ (유로화 동향) 미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달러 가치 하락 속 강세 출발. 이어 관세 90일 유예로 유로 약세 전환 후, 미-중 관세 갈등 격화에 달러 급락하며 유로는 근래 최고치 상승. 중반, ECB 6차례 금리인하, 총재 경기 하방위험 강조 등 비둘기 성향에 하락 후, 파월 해임 언급 등 달러 약세 요인 대두로 재차 강세 전환. 후반, 미-중 협상 교착과 미 지표 부진에 달러 약세 반영하다 일부 협상 타결국 소식으로 달러 강세 반전 속 유로 약세 전환하며 마감

5월 유로/원 예상범위
: 1,590~1,620원

■ 유로화는 최근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6회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앞선 인프라 투자, 재정 확대와 함께 경기 회복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세 압력 우세할 전망. 여기에 미 달러 약세 요인 지속 측면도 유로 강세 지지 요인으로 보임. 다만,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상존과 최근 중부 유럽 전쟁 종전 불확실성 등이 강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유로존 물가 하락 속 연속 금리인하와 인프라 재정 확대 등이 경기 회복력 강화 뒷받침 할 전망. 여기에 미 경기지표 부진 등에 따른 시장의 연준 금리인하 기대도 약달러 견인하며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
- 다만, 미-중간 관세 협상의 부진한 측면과 중부 유럽 전쟁 종전 가능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 등이 유로 강세 제한할 가운데 유로/원 환율은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상대적 강세로 1,610원 전후 등락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한국 휴장 [휴장]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독일(근로자의날) [IT] 4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 발표 유류세 인하폭 축소 한 4월 수출/입(YoY +3.0%, +2.3%) 미 3월 건설지출(MoM +0.7%) 4월 Challenger Job Cuts(YoY +204.8%)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일 4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소비자기대지수(34.1)	**2 미국 고용보고서** [휴장] 중국(근로자의날) 한 4월 CPI(MoM +0.2%, YoY +2.1%) CPI 근원(YoY +1.9%) S&P 글로벌 제조업 PMI(49.1) 미 3월 제조업수주(MoM +0.6%) 내구재 주문[F]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228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209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2%) 시간당 평균 임금(MoM +0.3%) 경제활동 참가율(62.5%)	**3** 호주 연방총선
4 유 3월 실업률(6.2%) 4월 HCOB 제조업 PMI[F] CPI[P](YoY +2.2%) CPI 근원[P](YoY +2.4%) 일 3월 실업률(2.4%)	**5 한국 휴장** [휴장] 한국, 일본(어린이날), 영국(초봄 휴일) 중국(근로자의날), 홍콩(석가탄신일)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미 4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5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19.5)	**6 한국 휴장, 미국 FOMC(~7)** [휴장] 한국(석가탄신일), 일본(녹색의 날) [미국 FOMC(~7)]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4.25%~4.50% 동결하고 QT는 4월부터 속도조절 예고 (2)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점도표 3.9%로 올해 두 차례 인하 시사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EU,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 중단 계획 발표 중 4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51.8, 51.9)	**7 지준일** 한국은행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2025 바이오코리아(~9) 2025 인터배터리 유럽(~9) 미 3월 소비자신용지수 유 3월 소매판매(MoM +0.3%, YoY +2.3%) 일 4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프랑스 경상수지, 무역수지	**8 옵션만기일, BOE 통화정책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로 동결 (2) BOE 총재는 금리가 점진적 하락 경로에 있으나 경제 불확실성 높다는 입장 BOJ 3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독일 무역수지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 중 4월 수출/입(YoY +12.4%, -4.3%) 일 3월 동행지수[P] 4월 공작기계 수주[P] Fed's Goolsbee Gives Remarks at Fed Listens Event 미 채권입찰(30년) 한 3월 경상수지 영국 산업생산 MoM, YoY	**10**
11	**12**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한 5월 1~10일 수출/입(YoY +13.7%, +6.5%) 미 4월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3.6%) 일 경상수지	**13 MSCI 분기 리뷰, 미국 CPI** MSCI 분기 리뷰 : 5월 MSCI 정기 변경은 6/2일 적용 예정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16) BOJ 4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채권] 미국 1년물 국채 입찰 미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7.4) CPI(MoM -0.1%, YoY +2.4%) CPI 근원(MoM +0.1%, YoY +2.8%) 유 5월 ZEW 서베이 예상(-18.5)	**14** 한 3월 통화 및 유동성 4월 실업률(2.9%) 일 4월 PPI(MoM +0.4%, YoY +4.2%) 미 총 가계부채, MBA 구매지수 독일 CPI상승률(확정) YoY 호주 주택대출 QoQ	**15** 한 3월 통화공급 M2(MoM +0.6%) 미 4월 PPI(MoM -0.4%, YoY +2.7%) PPI 근원(MoM -0.1%, YoY +3.3%) 소매판매(MoM +1.4%), 소매판매 근원 광공업생산(MoM -0.3%), 설비가동률 5월 NAHB 주택시장지수(40) 유 1Q GDP[P](QoQ +0.2%, YoY +1.2%) 3월 산업생산(MoM +1.1%, YoY +1.2%)	**16** 미국 옵션만기일 한 4월 수입물가(MoM -0.4%, YoY +3.4%) 수출물가(MoM +0.3%, YoY +6.3%) 미 4월 주택착공건수(MoM -11.4%) 수입물가(MoM -0.1%, YoY +0.9%) 수출물가(MoM +0.0%, YoY +2.4%) 5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19.8)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1Q GDP[P](QoQ +0.6%, YoY +2.9%)	**17**
18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경제)	**19 RBA 통화정책회의(~20)** 영국-EU 정상회의 RBA 통화정책회의(~20)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로 동결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22) 중 4월 실업률(5.2%) 광공업생산(YoY +7.7%) 소매판매(YoY +5.9%) 유 4월 CPI[F](MoM +0.6, YoY +2.2%) CPI 근원[F](YoY +2.4%)	**20 구글 I/O(~21)** 구글 I/O 2025(~21) : 구글 최대 연례행사인 개발자 컨퍼런스로 안드로이드16 주요 변화 등 발표 예상 컴퓨텍스 타이베이 2025(~23) 엔씨소프트, 리니지2M 동남아 출시 미 5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유 3월 건설 생산(MoM +1.1%)	**21**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한 5월 1~20일 수출/입 (YoY -5.2%, -11.8%) 일 4월 수출/입 (YoY +3.9%, +2.0%) 영국 CPI상승률 YoY 캐나다 신규주택가격지수 YoY, MoM	**22** 미 4월 기존주택매매 5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유 5월 HCOB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P] 일 5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2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사회) 한 4월 PPI(YoY +1.3%) 미 4월 신규주택매매(MoM +7.4%) 건축허가[F](MoM +0.5%) 5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전국, 국내 CPI	**24**
25	**26** [휴장] 미국(현충일), 영국(뱅크홀리데이) 일 3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 5/27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30) 2025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29) 캐나다 제조업 판매(잠정) MoM	**27 하나증권 리서치 전망 포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정치) 하나증권 리서치 하반기 전망 포럼(~28) FTSE 연간 리뷰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4월 내구재 주문[P]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중 4월 산업생산 유 5월 소비자기대지수[F] 일 4월 PPI 서비스	**28엔비디아 실적 발표**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한 4월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 미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현황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29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75%로 동결. 미국 관세, 경제 등 불확실성 크다는 입장 (2)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면서 한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불가피 [채권]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미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S]	**30 미국 ASCO(~6/3), 미국 PCE** [휴장] 대만, 홍콩(조정 휴일) 미 5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MNI 시카고 PMI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4월 소매판매 5월 도쿄 CPI	**31** 한 3월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은행